

보도시점 2023. 9. 5.(수) 09:00 배포 2023. 9. 5.(수) 09:00

'23.8월 소비자물가는 3.4% 상승

- 변동성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는 3.3%로 전월 수준 유지

<'23.8월 주요 물가 지표>

(전년동월비, %)	총지수	식료품·에너지제외	농산물·석유류제외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23.7월 → 8월	2.3 → 3.4	3.3 → 3.3	3.9 → 3.9	1.8 → 3.9	1.3 → 5.6

'23.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4% 상승(전월비 1.0%)하였다. 작년 7월 물가 정점(6.3%) 이후 소비자물가의 전반적인 둔화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 상승한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고 호우·폭염 등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상승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는 전년동월비 3.3% 상승하며 7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가공식품(6.8 → 6.3%)과 개인서비스(4.7 → 4.3%)는 둔화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9월에는 국제유가·기상여건 등 높은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으나,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 물가는 다시 안정흐름을 회복할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주요 품목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044-215-2771) 사무관 김정호 (044-215-2777)

1. 주요 내용

① [소비자물가]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및 일시적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3.4% 상승(전월비 1.0%)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전년동월비	5.4	6.0	6.3	5.7	5.6	5.7	5.0	5.0	5.2	4.8	4.2	3.7	3.3	2.7	2.3	3.4
전월비	0.7	0.6	0.5	△0.1	0.3	0.3	△0.1	0.2	0.8	0.3	0.2	0.2	0.3	0.0	0.1	1.0

① (농축수산물) 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했으나, 폭염·호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10.5%)하면서 전년동월비 2.7% 상승(전월비 5.3%)

* 세부 품목별 전년동월비(%, 7→8월) : (농산물)0.3→5.4 (축산물)△4.1→△2.7 (수산물)5.9→5.8

② (석유류) 7월 중순부터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되며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상승(전월비 8.1%, 전년동월비 △11.0%)

③ (개인서비스) 외식·외식제외서비스 모두 전월비 상승폭 둔화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비 4.3% 상승(전월비 0.2%, 18개월만에 최저 상승)

품목별 상승률(%)	전체	농 축 수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전기가스 수도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외식	외식 제외
전년동월비	2.3	△0.5	0.0	△25.9	21.1	0.3	1.2	4.7	5.9	3.8
'23.7월 (기여도, %p)		0.0	0.0	△1.5	0.7	0.0	0.1	1.4	0.8	0.7
전월비	0.1	1.7	0.0	△0.7	△4.9	0.0	0.3	0.3	0.3	0.4
전년동월비	3.4	2.7	2.6	△11.0	21.1	0.2	1.7	4.3	5.3	3.6
'23.8월 (기여도, %p)		0.2	0.9	△0.6	0.7	0.0	0.2	1.3	0.7	0.6
전월비	1.0	5.3	1.2	8.1	0.1	0.0	0.5	0.2	0.1	0.3

② [근원물가] 변동성 강한 품목들을 제외한 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동월비 3.3% 상승(전월비 0.3%)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3.4	3.9	3.9	4.0	4.1	4.2	4.3	4.1	4.1	4.0	4.0	4.0	3.9	3.5	3.3	3.3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4.1	4.4	4.5	4.4	4.5	4.8	4.8	4.8	5.0	4.8	4.8	4.6	4.3	4.1	3.9	3.9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전년동월비 3.3% 상승(전월비 0.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로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전년동월비 3.9% 상승(전월비 0.2%)

* 우리나라에서 활용 중인 근원물가로서, 전체 458개 품목 중 변동성이 가장 강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

③ [생활물가] 농산물·석유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3.9% 상승(전월비 1.5%)

*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

**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비, %, 7→8월): (식품) 4.1 → 4.7 (식품이외) 0.4 → 3.3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생활물가지수	6.7	7.4	7.9	6.8	6.5	6.5	5.5	5.7	6.1	5.5	4.4	3.7	3.2	2.3	1.8	3.9

④ [신선식품] 폭염·태풍 등 기상여건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5.6% 상승(전월비 9.9%)

*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 신선식품지수(전년동월비, %, 7→8월): (신선과실) 5.2→13.2 (신선채소) △5.3→△1.1 (신선어개) 6.2→6.0
(전 월 비, % 7→8월): (신선과실) 5.4→10.0 (신선채소) 7.2→16.6 (신선어개) △1.1→△0.8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신선식품지수	2.5	5.4	13.0	14.9	12.8	11.4	0.8	1.1	2.4	3.6	7.3	3.1	3.5	3.7	1.3	5.6

2. 평가 및 대응

□ [평가] 8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폭염·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3%대로 상승

- 폭염·호우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으나, 기상여건 개선으로 9월 들어 점차 안정화

* 배추 소매가격(원/포기): ('22.8)6,687 ('23.7.24)4,257 (7.31)4,380 (8.11)6,073 (8.24)5,763 (9.4)5,561
상추 소매가격(원/100g): ('22.8)1,958 ('23.7.12)1,404 (7.22)4,211 (8.24)1,673 (8.30)1,632 (9.4)1,606

- 금년 7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
- 작년 8월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던 부분(기저효과)도 사라지면서 전년동월대비 석유류 기여도가 큰 폭 축소

* 석유류 물가 기여도(%p): ('23.7월)△1.5 → (8월)△0.6 (+0.9%p)

- 변동성 강한 품목을 제외한 OECD 기준 근원물가는 3.3%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전반적 물가 흐름은 유지될 전망

⇒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10월 이후에는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며 안정화 예상

□ [대응] 물가 안정 흐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배추무 비축분 방출(1.1만톤), 닭고기(3만톤)·돼지고기(1.5만톤) 할당관세 추석 전 최대한 도입, 역대 최대 규모 670억원을 투입하여 국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최대 40~60%, 8.31~9.28일) 등

- 특히,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